

◎ 李相佰博士所藏選品展示會

李博士의 回甲을 紀念하여 九月 十八일부터 十月 十日까지 서울大博主催 東亞文化研究所後援으로 開催되었는데 出品은 典籍類가 三十八點, 書畫類가 三十九點, 拓本類 十五點, 工藝品類, 四十一點의 多數로서 中國것이 過半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따로 九月 十八日 서울大 教授會館에서는 盛大한 回甲紀念論叢進呈宴이 있었다.

— 第五卷 第十一號 通卷五十二號 —  
南原 女院峙의 磨崖如來像

秦 弘 燮

南原에서 雲峰을 向해서 十餘km 가면 女院峙(巖)라는 곳이 있고 여기 磨崖如來像과 磨崖碑 그리고 一連의 遺址가 있다. 이 磨崖佛은 溪谷에 面하여 南向하였고 道路는 바로 그 위에 나 있기 때문에 좀처럼 눈에 띠지 않았던 모양이다. 南向한 岩面은 넓이約 六m 高約 三m로 道路 밑으로 박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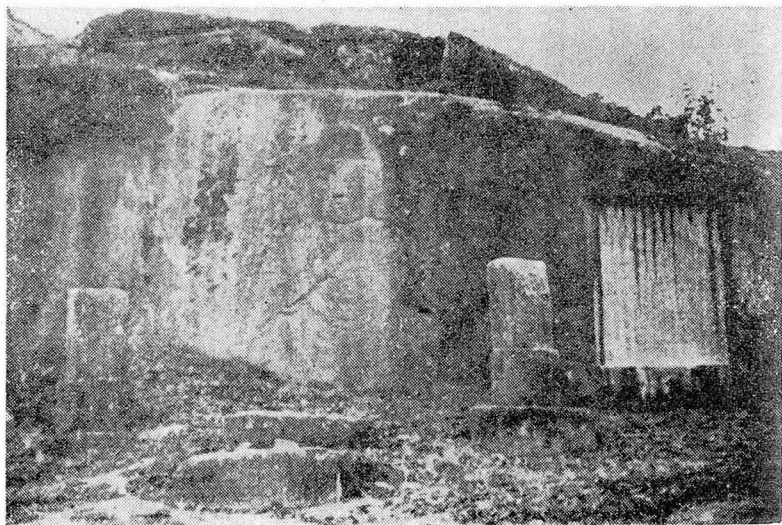
佛像은 下部가 埋沒되어 膝部의 狀態를 알 수 없으나 立像이 아닌가 推測된다. 肉髻는 적은데 素髮이며 半圓을 이룬 眉線은 뚜렷하나 눈은若干 희미하다. 코는 작은 편이며 口술은 두껍다. 두 볼에는 살이 많이 찌서 코가 더욱 적어 보이며 큼직한 귀뱀이 어깨에 다았다. 바른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어깨가 넓게 퍼졌다. 法衣는 通肩인데 두꺼워서 肢體의 輪廓이 나타나 있지 않다. 衣褶은 앞가슴에서 한번 反轉된 衣端이 있고 그 밑으로 平行 孤線이 陰刻되고 두 팔에도 주름이 있다. 右手는 胸에 比해서 적은 便인데 가슴에 대어 內掌하였으며 左手는 팔꿈치 附近에서 切斷되었다. 刻線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올수록 흐려져서 腹部以下는 岩面의 損傷도 겹들어 매우 희미하다. 얼굴에도 살이 많지만 胸에도 살이 많아 肥滿型이다. 머리에 圓形 頭光이 있으나 陰刻線으로 나타냈을 뿐

다른 彫刻은 없다.

現高 二四二cm, 頭高 九一cm, 肩幅 一〇九cm, 頭光幅 一〇〇cm이다.

岩面에서 一·四m 떨어져 前面에 底面에서 二·三m의 間隙을 두고 雙柱가 서 있다. 雙柱는 現高 九四cm인데 三段으로 되어있다. 方形 地臺石위에 高三五cm 一邊 四〇cm 幅의 方形石柱가 있는 相對한 面과 岩石을 向한 面에 一〇×一五cm 길이 三·五cm의 方孔이 있다. 그 위에 高五八cm, 一邊幅 一六cm의 八角柱가 附加되었다.

雙柱는 同一한 構造를 하고 있는데 碑文에 있듯이 佛閣의 柱礎로 보여진다. 이것은 左側柱礎에서 岩面을 向하여 直線을 이루는 岩石上面에도 徑四〇cm의 圓形 柱座가 있음으로 보아 더욱 確然하다. 이와 같은 柱座는 右側에도 있을 듯 하나 土砂에 덮혀 알 수 없다. 雙柱에 있는 方孔은 石방을 끼었던 자리 같으며 그 밖으로 方形으로 돌을 깔고 石床이 놓여 있다. 또 岩石 上面에는 佛像이 彫刻된 岩面에서 二m 떨어진 곳에 二〇cm 幅으로 排水溝를 파서 東으로 흐른 傾斜를 따라 물이 흐르게



되었다.

磨崖佛에 佛閣을 架設하고 岩石 上面에 排水溝를 設置하는 例는 없는 바 아니나 如來像 東側에 高一四二cm 幅一三一cm의 方區를 九cm 깊이로 파고 이 如來像에 關한 興味 津津한 事緣이 刻字로 되어 있다. 碑文은 다음과 같다.

夫此山祖德裕而連脉於智異者也名曰以女院取諸何意」路傍石面有女像影刻又閣而庇之破瓦遺礎尙存焉蓋」想因此錫地名者也然則其誰之像也謹考雲城誌有曰」在昔洪武十五年辛巳未我」聖祖受鉞東征之時登臨于此時上則有一道姑告以大」捷日時因忽不見此直山神之顯靈也明矣耶以有影」其像而奉之信有瞻慕之蹟也 古老相傳之說至于」今五百餘年而不泯然閣廢而只存遺像未免風雨之所」侵撲亦爲蠹蝕而掩眞影曷勝歎載餘有興感於斯趨而」一番之洗而看之則完然如觀山神之眞面目矣於是乎」名工捧匠仍舊礎而棟焉掛新椽而瓦之煌然有政觀之」效嗚呼與廢數之存焉豈敢有微誠之可稱載

光武五年辛丑七月 日 通政大夫前行羅州鎭石營將

雲峰縣監 朴貴鎭記

이와같은 事由로 因하여 이 고개는 「女院峙」라고 부르게 되었던 듯하며 이 地方에서는 지금도 이 像을 「女像」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嚴然히 如來像이며 그 造成도 羅末麗初로 보여지니 「道姑」의 傳說은 믿기 어렵다. 「五百餘年」前 일은 고사하고라도 縣監 朴貴鎭이 이를 보고 「山神之眞面目」이라고 感嘆한 것은 佛像에 對한 無智의 所致이려니와 苦笑를 禁치 못한다. 佛閣의 施設도 「洪武十五年」(碑文에 十五年은 十三年 같기도 하나 모두 辛巳年은 아니다. 무슨 착각일 것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柱礎와 排水口 等 一連의 施設은 創設當時의 것으로 보여진다.

〔追記〕 이 곳을 調査한 時間은 해가 막 西山으로 넘어간 때였음으로 充分히 調査할 時間이 없었고 따라서 碑文에도 誤讀이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佛像 前面의 埋沒된 部分과 아울러 建物址의 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고 碑文도 精讀하고자 한다. 「女像」의 存在를 알려준 南原教育區 崔重烈氏에게 感謝하는 바이다.

〔註〕東國輿地勝覽 雲峰縣 山川條에 女院峴 在縣西七里 南原府界로 있고 同條條에는 女院在女院峴下라고 있다.

### 風納里 土城內 住居層

金 元 龍

서울市城東區 風納里(舊廣州郡) 漢江南岸에 있는 土城址는 百濟時代初期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 城內에서의 住居歷史를 밝히는 한편 三國時代初期의 土器相을 正確히 把握함을 目的으로 十月十六일부터 三十一일까지 서울大 考古人類學科 三學年 野外考古學實習을 兼하여 城內 數個所를 發掘調査하였다.

이 土城은 漢江의 水流와 平行하여 砂土와 粘土로 쌓은 細長한 長方形 平地防堤이며 東西壁길이 一·五km, 南北壁길이 三百m 쯤되는 比較的 넓은 聚落址지만 洪水에 依해 漢江에 面한 北壁의 大部分이 잘리워 나가고 있다.

이 地帶는 表土에 乙丑年(一九二五年)大洪水時의 白砂層(二〇—五〇m)이 덮히고 그 밑에 赤褐粘土層(最深二m以上)이 있고 바닥에는 굵은 砂層이 나오는 大體로 三層을 이루고 있는데 地下水는 이 砂層에서 나오며 表土에서의 깊이가 三·二m 程度이다. 城內에는 最近 急激히 家屋數가 增加하고 있으며 餘他的 土地는 모두 野菜田化하고 있다.

이번 發掘에서는 이 城內 東半部 七個所에 瓦를 판것에 不過했다. 地表中에서는 現代陶器, 李朝末期磁器, 三國時代土器片이 나오나 攪亂되지 않은 地點에서는 地表나 白砂層에는 一切 遺物이 없고 粘土層에서 三國時代土器片만이 나오고 있다. 이 粘土層은 洪水로 因한 堆積層인데 中間部에서 漂流해온 것이 分명한 櫛文土器文化의 打製礫石斧도 있으나